

원전 핵심시설 20분간 화재 자동진화 안돼 사람이 컸다

한빛원전 2호기 가동중단 ... 자동소화장치 설치 등 안전 강화해야

영광 한빛원전 2호기에서 화재가 발생,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다. 방사선 누출 위험 등 위험성을 안고 가동되는 원전의 특성과 원전의 핵심 설비를 제어하는 배전실에서 일어난 불이 20여분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설비 자체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새벽 2시55분 한빛 2호기 터빈건물 내 원자로 냉각재 펌프 제어 차단기(캐비닛)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제어 차단기는 전력기에서 발생한 이상 상태를 감지하고 적절한 신호를 보내 고장이나 사고의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화재로 원자로 냉각재 펌프에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가 열리면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와 원자로가 순차적으로 멈춰섰다.

■ 한빛 2호기 화재 개요 (8일·원전민간감시센터 자료)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설비가 지난해 9~11월 부품이 교체되고 정기점검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품질관리 부실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래철 중앙소방전기학원 원장은 “원자력발전소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법안이 지난해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이번 기회에 원전의 경우 일정 전기 설비에 자동 소화장치가 의무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기계공학 기술사)도 “품질 관리와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빛원전 측은 “과열로 배전실에서 불꽃이 일고 연기가 나서 작업자가 순식간에 소화장비로 연기를 제압한 것이지 10여분간 화재가 지속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방사능 물질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불에탄 원전

한빛 2호기 터빈건물 내 전기설비에서 지난 8일 새벽 일어난 화재로 원자로 냉각재 차단기가 그을리고 녹아내린 모습. 이 불로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다.



立秋... 폭염에도 가을은 온다

입추(立秋·8일) 하루 뒤인 9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광주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된 김용학 가족 앞 도로에서 마을주민이 빨갛게 익은 고추를 벌에 말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재인 체제로는 내년 총선 못치러”

새정치 비주류·호남 의원 16명 광주서 회동...비대위 체제 논의 “분당·신당창당은 시기상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호남 지역 비주류 의원들이 지난 8일 광주에서 만찬회동을 하고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거론하는 등 향후 당내

진로를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날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진행중인 혁신위의 혁신 결과를 지켜본 뒤 뜻을 같이 하기로 해 혁신위 활동 마감 이후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날 모임은 9일 시작된 자전거 국토순례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온 이종걸 원내대표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동철·박주선·박지원·주승용·김영록·문병호·이윤석·장병완·박해자·임내현·권은희·신정훈·이개호·이상직·최원식 의원 등 모두 16명으로, 대부분 주류인 문 대표 체제에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비주류, 비노(비노무현) 성향 의원들이다. 이날 오후 광주에서 자신의 저서 ‘누가 지도자인가’ 사인회를 한 박영선 전 원내

대표도 만찬 자리에 잠시 들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문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의 반감 등을 전하며 당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특히 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 대표가 사퇴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문 대표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까지 가정해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신당 창당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지만, 현재 혁신위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분당과 창당은 시기상조라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일단 이달까지는 혁신위 활동에 힘을 실어주며, 활동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 민심의 흐름을 보면서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무등산에 팔색조 산다

국립공원사무소, 번식 현장 발견

무등산국립공원과 경남 창녕 우포늪에서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의 서식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무등산국립공원과 창녕 우포늪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2급)인 팔색조의 번식 현장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6월 8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실시한 무등산 생태조사 과정에서 팔색조 번식 현장을 포착했다. 우포늪에서는 6월말 5개의 알이 있는 팔색조 동자가 발견됐다. 팔색조는 8가지 아름다운 색을 띠는 우리나라 여름철새로, 서식 환경이 까다로우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계곡과 해안, 섬, 내륙의 경사지 등에서 산다. 성체의 몸 길이는 18cm 가량이며, 선명한 색깔로 인해 다른 종(種)과는 쉽게 구분된



다. 번식기는 5~8월이며 한 번에 4~6개의 알을 낳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발견은 무등산국립공원과 우포늪 습지보호지역이 야생생물 서식에 알맞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사진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봉사자 박석규씨 제공>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광복70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미래입니다.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